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6년 4월 30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19 국외 항만 주요 동향
 32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부산항, 카케리어 LNG 벙커링 상업 운영 실시
- 울산항, 친환경 선박연료 급유 인센티브 도입
- 평택·당진항, 중동 분쟁 대비 자동차 수출 물류 긴급 점검

국외 항만 주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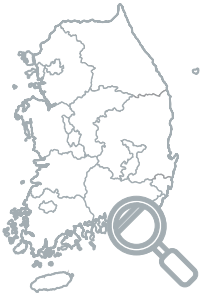
- 미국, 이란 항만 봉쇄 시행 및 해상 교역 전면 차단
- 일본, 호르무즈 해협 우회 원유 수송 대체 루트 3개 검토
- 중국, 텐진항 덩시크·화웨이 적용으로 장비 자동화율 88%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26년 3월 국제유가, 전월 대비 57.8% 상승
- 중동사태로 인한 수입물가 전월 대비 16.1% 급등
- 호르무즈 사태 장기화, 석유제품 수출 제한 여부 딜레마로 부상

0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1 부산항만공사(BPA), 국내 최초 항공·철도 연계 부산 모항 크루즈 운영 개시¹⁾

- 🔍 BPA가 항공과 철도를 연계한 ‘Fly·Rail&Cruise’ 방식의 국내 최초 부산 모항 크루즈 운영을 개시함
 - 3월 24일 프랑스 포낭(Ponant)사의 르 쏘레알(Le Soleal)호가 부산항 영도 크루즈 터미널에 입항하며 새로운 운영 방식이 시행됨
 - 해외 승객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 관광을 거쳐 KTX 등 철도를 이용해 부산으로 이동해 승선하는 구조로 운영됨
 - 기존 수도권 인근 항만 중심의 승선 방식과 달리 서울·부산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 🔍 이번 운항을 통해 부산항이 동북아 모항 크루즈 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함
 - 르 쏘레알호는 3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 부산과 오사카를 모항으로 시범 운영이 추진될 예정임
 - 승객들은 서울과 부산에서 관광 및 숙박 일정을 소화한 뒤 승하선함으로써 전국 단위 관광 소비 확대 효과가 기대됨
 - BPA는 '23년부터 포낭 본사를 직접 방문해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24~'25년 실무 협의를 거쳐 영도 크루즈터미널을 모항으로 전략 배정했음
 - 이를 계기로 ‘Fly·Rail&Cruise’ 형태의 모항 크루즈 유치를 지속 확대할 방침을 밝힘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3.23.), [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3&dataSid=36064\(2026.04.24. 검색\)](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3&dataSid=36064(2026.04.24. 검색))

2 BPA, 카캐리어 선박 LNG 벙커링 상업 운영 실시²⁾

-  BPA가 부산항 최초로 카캐리어 선박을 대상으로 한 LNG 벙커링 상업 운영을 실시함
 -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부산항 신항 다목적부두에서 프랑스 선사 CMA CGM의 카캐리어선인(71,631톤급)를 대상으로 LNG 벙커링 작업을 진행함
 - LNG 공급은 한국엘엔지벙커링의 BLUE WHALE호를 통해 STS(선박 대 선박) 방식으로 이뤄짐
-  부산항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체계가 본격적인 상업 단계로 확대됐으며, 친환경 벙커링 인프라가 항만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됨
 - 국제 해운 탈탄소 정책 강화에 대응해 BPA는 LNG 및 메탄올 연료 벙커링 실증을 '24년 10월까지 완료했으며, '24년 11월부터 친환경 선박 연료 벙커링의 본격적인 상업 운영에 돌입함
 - 부산항만공사는 친환경 선박 연료 벙커링 능력이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주요 경쟁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으며, 향후 부산항 친환경 연료 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4.10.), [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2&dataSid=36139\(2026.04.24. 검색\)](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2&dataSid=36139(2026.04.24. 검색))

2) 인천항



1 내항 유희부지 활용을 통한 물류 기능 강화 추진³⁾

-  인천항만공사(IPA, Incheon Port Authority)가 인천 내항 일원의 유희 항만시설을 민간에 개방하는 입찰 공고를 실시하며 물류 경쟁력 제고에 나섬

 - 입찰 대상은 인천시 중구 항동7가 42(일부) 및 42-1 일대 부지 2,916.73㎡와 건물 782㎡로, 수출입 화물 처리 및 지원시설 용도로 활용될 예정임
 - 공개경쟁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며, 예정가격은 연간 약 1억 1,000만원(부가세 별도), 사용기간은 최대 5년임
-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OnBid)를 통해 진행되며, 참가 요건과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 참가 자격은 신용평가등급 B-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 납부 및 항만시설 활용계획서 제출이 요구됨
 -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공고가 진행되며, 5월 13일 입찰서 제출·보증금 납부, 5월 14일 개찰 순으로 진행됨
-  제한된 항만 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인천항 물류 기반을 강화할 계획임

 - 사용료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등을 반영해 조정되며,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기준으로 선정함
 - 민간 물류기업의 항만 참여 확대를 통해 인천항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 해사신문(2026.04.26.), <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495>(2026.04.27. 검색)

2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와 대외 불확실성 대응 협력 체계 강화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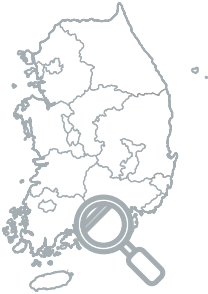
-  인천항만공사(IPA, Incheon Port Authority)가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중동사태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함
 - 이번 간담회는 기존 터미널 운영사 영업 및 운영팀장급 비상 점검회의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글로벌 해운·물류 환경 변화 속 인천항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됨
 - IPA를 비롯해 E1CT, HJIT, ICT, SNCT 등 주요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대표자들이 참석함
-  중동 지역 정세 불안 장기화와 국제유가 상승이 해운·항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중동사태에 따른 글로벌 해운·물류 환경 변화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인천항 운영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
 - 공사와 터미널 운영사 간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을 모색함
-  향후 해운 시장 동향 및 대외 변수에 따른 운영 여건 변화를 지속 공유하며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할 계획임
 - 터미널 운영사와의 정례적 소통을 바탕으로 항만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천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갈 예정임
 - 또한,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4.22.),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32128&boardKey=217&menuKey=3996¤tPageNo=1>(2026.04.27. 검색)

3) 여수·광양항



1 세계 3위 프랑스 국적선사 CMA CGM, 신규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 취항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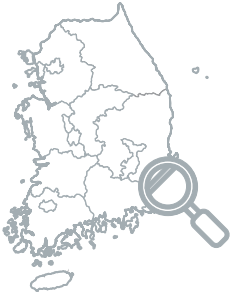
-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Yeosu Gwangyang Port Authority)는 세계 3위 프랑스 국적선사 CMA CGM의 신규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 'PEARL AS1'을 유치하고, '26년 4월 21일 취항 기념행사를 개최함
 - YGPA는 광양항 이용 화주의 주요 불편 사항인 정기선 항차 수 및 원양 서비스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CMA CGM 아태지사(싱가포르)를 대상으로 타깃 마케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신규 노선 유치로 성과를 거둠
 - 신규 노선은 아시아-북미 서안을 잇는 장거리 팬듈럼(Pendulum) 노선으로, 8,000TEU급 선박이 매주 1회 투입됨
 - 기항지는 광양-청도-상해-닝보-쑤저우(중국)-싱가포르-나바쉐바-문드라(인도)-카라치(파키스탄)-콜롬보(스리랑카)-싱가포르-하이퐁(베트남)-샤먼-난샤-안티안(중국)-로스앤젤레스(미국)-광양 순으로 운영됨
 - 이번 정기선 유치를 통해 광양항의 항만 연결성이 강화되고 연간 약 10만TEU의 신규 물동량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환적 물동량 기반 확대와 원양 서비스 라인업 강화가 기대됨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5) 헤럴드경제(2026.04.2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22313\(2026.04.27. 검색\)](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22313(2026.04.27. 검색))

4) 울산항



① 울산항만공사(UPA), 선박 위치 기반 항행정보 공유 확대⁶⁾

- 울산항만공사가 선박 위치 기반 항행정보를 통합 개방하며 포트와이즈를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를 개시함**
 - 3월 18일부터 울산항 대표 대고객 시스템 ‘포트와이즈’를 통해 선박 입·출항, 접안 계획, 항로 이용 현황 등 주요 항행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범운영을 시작함
 - 기관·시스템별로 분산돼 있던 항행 정보를 일원화함으로써 항만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 편의성을 제고함
 - 이번 조치는 국제 해사 디지털화 정책과 입항 최적화(Port Call Optimization) 흐름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됨
- 항행정보 개방을 통해 항만 안전성과 물류 효율성 제고 및 AI 기반 항만 구축이 추진됨**
 - 정보 공유 활성화로 선박 입·출항 계획의 예측 가능성이 향상되고, 선박 대기시간 감소 및 연료 절감 효과가 기대됨
 - 또한, 항행 안전성 강화와 항만 운영·물류 효율성 제고, 이용자 간 협력 기반 확대 효과가 예상됨
 - 4월부터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 외부 기업·연구기관에도 데이터를 공개하고, 데이터 기반 지능형 항만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을 밝힘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6) 울산항만공사(2026.03.18.),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idx=671&mid=0501010000&idx=16161>(2026.04.24. 검색)

2 UPA, 친환경 선박연료 급유 인센티브 도입⁷⁾

-  UPA가 차세대 선박연료 시장 선점을 위해 현금 지급형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함
 - '26년부터 울산항에 입항해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급유하는 외항 화물선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힘
 - 일반 입항 선박은 척당 최대 1,000만 원, 인도 출항 및 통과선박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올해 관련 예산 1억 원을 편성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임
-  또한, 기존 시행하던 '저유황유 급유 선박 대상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제도'도 개편될 예정임
 - 기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를 개편해 황 함유량 0.1% 미만 초저유황유 급유 선박에 한해 혜택을 제공하도록 기준을 강화함
 - 국제해사기구(IMO) 규제 강화에 대응해 보편화된 저유황유(0.5% 미만) 수준을 넘어서는 환경 기준을 적용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7) 울산항만공사(2026.04.03.),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dx=671&mid=0501010000&&idx=16224>(2026.04.24. 검색)

3 UPA, 불법 드론 대응체계 구축 본격화⁸⁾

-  UPA가 불법 드론 대응 절차 마련을 위한 컨설팅 용역에 착수하며 표준 대응 매뉴얼 구축을 본격화함
 - 4월 8일 ‘불법 드론 대응 절차 컨설팅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해당 용역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동 추진 중인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이후 실제 운용 단계에 필요한 대응 절차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됨
 - 울산항은 지난해 9월부터 약 40억 원을 투입해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4월 말 구축 완료 후 5월 초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임
-  유관기관 협력 기반의 실전 대응체계 마련으로 항만 보안 수준을 강화할 계획임
 - 현행 대응체계 분석, 관계기관 협력 기반 대응 프로세스 설계, 실전형 공동 대응훈련 체계 마련 등을 주요 과업으로 설정함
 - 초기 대응부터 상황 종료까지 단계별 표준 대응 절차를 수립해 체계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울산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통해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성과 항만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8) 울산항만공사(2026.04.08.),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dx=671&mid=0501010000&idx=16254>(2026.04.24.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산업부, 중동 분쟁 장기화 대비 자동차 수출 물류 긴급 점검 회의 개최⁹⁾

- 산업통상자원부는 '26년 4월 3일 평택·당진항에서 관계기관·화주·물류사 합동 자동차 수출 물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함**

 - 이는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
 - 회의에는 평택세관·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무역협회·코트라(KOTRA) 등 정부 부처, 항만당국, 완성차·물류사,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함
 - 자동차 수출입 거점인 평택·당진항은 중동 분쟁 장기화 시 RORO(Roll-on/Roll-off) 선적 지연과 대체항 분산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해상운임 상승으로 수출 물량 일부가 복합운송·우회 항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물류비 바우처 185억 원과 28조 4,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포함한 맞춤형 수출 물류 대책을 발표함**

 - 산업부는 중소 자동차 부품사 대상 긴급지원바우처 80억 원을 집행 중이며, 중동 수출 비중이 큰 기업에는 신청 3일 내 발급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4월 1일 기준 67개사를 지원함
 - 중기부는 긴급 물류 바우처 105억 원을 병행 집행 중임
 - 금융 지원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정책금융 24조 3,000억 원, 무역보험공사 유동성 3조 9,000억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으로 편성됨
 - 관세청은 수출신고 정정·취하 건에 면책 특례를 적용하고 유턴화물 24시간 통관을 지원하며, 코트라 '중동 분쟁 긴급대응 데스크'와 전국 6개 본부·직할세관 '수출입 기업지원센터' 간 협업을 강화함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4.0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2055\(2026.04.22. 검색\)](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2055(2026.04.22. 검색))

6) 포항항



1 포항시, 영일만항 경쟁력 강화 인센티브 총 4억 7,300만 원 지원¹⁰⁾

- 포항시는 '26년 제1차 영일만항 경쟁력강화 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5년 하반기 물동량 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선사·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 총 43개 업체에 4억 7,300만 원 규모의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확정함

 - 업체 유형별 지원 내역은 화주 40개 업체에 이용장려금 4억 3,900만 원, 선사 1개 업체에 항로연장지원금 2,800만 원, 국제물류주선업자 2개 업체에 볼룸 인센티브 600만 원으로 구성됨
 - 이번 인센티브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철강 산업 부진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 기조 속에서 기존 이용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임
- 포항시는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였으며, 국제 정세 불안과 해상 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항로 개설 및 글로벌 선사 유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

 - 위원회에서는 환동해권 물류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해 단순 지원 정책을 넘어 지속적인 항로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포항시는 이차전자·수소 산업 등 지역 신산업과 항만 물류를 연계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북극항로 개척 가능성을 활용하여 영일만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도 추진할 계획임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0) 경북일보(2026.03.30.),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8518>(2026.04.23. 검색)

7) 동해·묵호항



1 동해항 남부두(1단계) 13번 선석 개선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착수¹¹⁾

-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해수청)이 ‘동해항 남부두(1단계) 13번 선석 개선사업’에 대한 해양환경영향조사를 본격 착수하며 노후 항만시설 개선에 나섬

 - 현재 남부두 13번 선석은 노후 항만시설로 구조적 안정성 및 사용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조속한 시설물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현 쌍용시멘트의 항만 사용에 따른 공사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사업구간 320m를 1단계·2단계(각 160m)로 분할하는 단계별 공사 계획을 수립함
- 해양환경영향조사는 남부두 13번 선석 부지 및 인접 해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공사 시 환경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추진됨

 - 조사항목은 해양퇴적물, 해양화학(수온·염분 등), 해양 동·식물 등으로 구성되며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함
 -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자료 축적으로 해양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통해 남부두 개선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항만 운영 지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단계별 공사 추진을 통해 기존 항만 운영에 미치는 지장을 최소화하고 시설물 안전성을 조속히 확보할 예정임
 - 해양환경 보전과 항만 기능 강화를 병행하며 동해항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6.04.22.), <https://donghae.mof.go.kr/ko/board.do?menuidx=2536&bbsidx=131449>(2026.04.27. 검색)

8) 목포항

① 씨월드고속훼리, 1만 5천 톤급 신규 카페리 퀸메리호 목포 취항¹²⁾

- ❖ 씨월드고속훼리는 1만 5천 톤급 신규 카페리 퀸메리호를 도입하여 4월 30일 오후 2시 목포에서 첫 출항을 시작함
- 퀸메리호는 4월 27일 목포 삼학부두, 4월 28일 제주항에서 선박 공개 행사를 개최한 후 본격 운항에 돌입함
- 퀸메리호는 '20년 대선조선에서 건조된 길이 143m, 폭 22m, 총톤수 1만 4,919톤 규모의 로로(Ro-Ro) 카페리선으로 최대 756명의 여객과 270여 대의 차량을 수송할 수 있으며 최고 21.5노트로 운항함
- 초기에는 목포-제주 노선을 운항하고, 향후 진도-제주(애월) 노선으로 확대하여 지역 간 접근성과 관광 수요를 동시에 확대할 계획임
- 퀸메리호는 목포 오후 2시, 제주 오전 7시 출항으로 기존 새벽·오전 중심 일정에서 벗어나 보다 여유롭고 효율적인 여행 일정을 제공하며, 다양한 객실 구성과 함께 차별화된 선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임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2) 한국해운신문(2026.04.25.), [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955\(2026.04.27. 검색\)](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955(2026.04.27. 검색))

9) 대산항



1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청), 개청 30주년·대산항 개항 35주년 맞아 지속가능 해양행정 강화¹³⁾

- 대산항은 33개 선석을 확보하며 충남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거점 항만으로 성장함**
 - 대산항은 '91년 무역항으로 개항 당시 현대정유 돌핀 등 10개 선석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최대 32만 5천 톤급 2선석을 포함한 33개 선석을 확보하며 성장함
 - '25년 기준 항만물동량은 약 9,072만 톤, 컨테이너 물동량은 5만 9천 TEU를 기록하며 국내 6대 항만 위상을 확립하는 등 충남 지역경제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고 있음
- 대산청은 해양안전·영토수호·환경보전 강화를 통해 풍요롭고 안전한 바다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항로표지를 174기로 확충하고 격렬비열도 등대 재유인화 및 영해기점 설치를 통해 서해 중부 해역의 영토관리 역량을 강화함
 - 또한, 바다내비 도입으로 해양사고 예방체계를 고도화했으며, 어선원 안전·보건 지원을 확대함
 - 그 외에도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과 갯벌 복원사업 추진을 통해 블루카본 기반 확대와 친환경 해양생태 보전을 병행하고 있음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3) 대산지방해양수산청(2026.04.15.), <https://daesan.mof.go.kr/ko/board.do?menuidx=3019&bbsidx=131318>(2026.04.24. 검색)

2 격렬비열도항, 서해 영토수호 및 불법어업 대응 거점 항만시설 조성¹⁴⁾

-  대산청이 격렬비열도항에 해경 경비함정과 어업지도선 등이 계류할 수 있는 부두 개발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함
 - 격렬비열도항은 태안군 근흥면 북격렬비도에 위치한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서해 중부 영해기점 도서임
 - 국토수호, 선박 긴급피항, 불법어업 관리 등 전략적 활용이 필요한 섬으로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고 항만 기본계획이 수립됨
 - 그간 서해 중부 해역에는 해양영토 관리를 위한 국가관리 항만이 없어 불법조업 발생 시 신속 대응 단속과 해양사고 응급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음
-  대산청은 해양경비 및 어업지도 공백 최소화를 위한 항만시설 조성을 추진해옴
 - 설계비 27억 원, 총사업비 478억 원을 투입해 해경·어업지도선 부두, 호안, 헬기장 등의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함
 - 이를 통해 해경 및 어업관리단의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격렬비열도항이 서해 중부 영해수호의 거점항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4) 대산지방해양수산청(2026.04.08.), <https://daesan.mof.go.kr/ko/board.do?menuidx=3019&bbsidx=131167>(2026.04.24. 검색)

10) 군산항



1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착공¹⁵⁾

-  해양수산부는 군산항과 장항항의 준설토 처리 문제 해소를 위해 총 5,477억 원 규모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항만 운영 안정성 확보에 나섬

 - 군산항과 장항항은 금강 하구에 위치한 특성상 항로와 부두 구간에 토사가 지속적으로 퇴적되어 매년 유지준설이 필요한 상황임
 - 기존 금란도 투기장과 7부두 투기장은 '28년이면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 투기장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
-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도동 전면 해상에 추진되며, '30년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될 계획임

 - 총연장 4.17km의 호안과 1.16km의 가호안이 구축되며, 1·2공구로 나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수행함
 - 약 4,459만 m³ 규모의 준설토를 수용할 수 있어 향후 약 10년간 두 항만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체 준공 이전 처리 공백 방지를 위해 일부 구간을 '27년 말까지 우선 조성해 조기 운영에 들어갈 방침임

 -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 통과(B/C 1.75)를 거쳐 사업이 추진 되었으며, 군산·장항항 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전국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임

15) 해사신문(2026.04.22.), <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366>(2026.04.27.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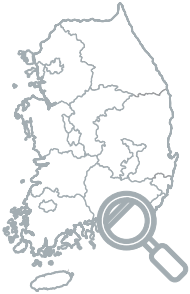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대상지



자료: 해사신문(2026.04.22.), <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366>(2026.04.27.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1) 마산항



1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6년 상반기 항만·어항 건설 현장 관계자 간담회 개최¹⁶⁾

-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항만·어항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시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 및 어항 건설현장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함
 - 본 간담회에는 관내 항만·어항 현장 7개소 관련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등 건설 관계자와 발주청 담당자 약 40명이 참여하여 사업별 공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함
 -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별 재정집행 집행률 제고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행동 수칙 공유 및 청렴 서약서 작성이 이루어짐
 - 안전 전문 강사를 초빙한 특별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안전 역량을 결집하였으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제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통해 재해 없는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을 추진할 방침임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6) 마산지방해양수산청(2026.04.15.), <https://masan.mof.go.kr/ko/board.do?menuIdx=2311&bbsIdx=131316>(2026.04.23. 검색)

0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텐진항, 딥시크·화웨이 적용으로 장비 자동화율 88% 달성¹⁷⁾

- 텐진항 제2컨테이너터미널이 초거대 AI 기반 항만 플랫폼을 도입해 하역부터 선적까지 핵심 공정의 완전 무인화를 구현함
- 화웨이의 ‘판구’ 모델 기반 ‘포트GPT’와 딥시크 LLM을 적용해 하역, 야드 운영, 수평 운송을 통합 지휘하는 구조를 구축함
- 92대의 AI 무인 운송차가 5G 통신과 베이더우 위성항법 체계를 활용해 운영되며 안벽 크레인 하역·선적 작업을 약 10분 만에 완료하는 체계를 구현함
- 포트GPT 도입 이후 운영·유지보수 효율이 45% 개선됐고, 야드 통합 제어 시스템 가동으로 크레인 가동률이 추가로 12.3% 상승함
- 대형 컨테이너 장비 자동화율은 ’24년 66%에서 ’25년 88%로 증가했으며, 연간 250만 TEU를 무인 체계로 처리해 국내 주요 터미널 대비 약 3배 수준의 물동량을 소화하고 있음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② BPA, 선전 투자설명회 통해 신항 남측 배후단지 글로벌 유치 본격화¹⁸⁾

- BPA가 중국 선전에서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남측 컨테이너 배후단지에 대한 글로벌 기업 유치 활동을 본격화함
- 선전 및 홍콩 지역 첨단 제조·물류기업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항의 투자환경과 입지 경쟁력을 홍보함
-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인 남측 컨테이너 배후단지의 입주기업 선정계획을 안내하며 구체적 투자 기회를 제시함
- 일본통운, DP World 등 글로벌 물류기업의 진출 성공 사례를 공유해 사업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강조함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해 개별 기업 미팅과 맞춤형 투자 상담을 병행하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기반을 강화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7) 서울경제(2026.03.28.), [https://www.sedaily.com/article/20025217?ref=naver\(2026.04.24. 검색\)](https://www.sedaily.com/article/20025217?ref=naver(2026.04.24. 검색))

18) 코리아워킹가제트(2026.03.06.),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num=146688\(2026.04.21. 검색\)](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num=146688(2026.04.21. 검색))

2) 아시아



1 싱가포르-함부르크 항만당국, 해사 사이버보안 협력 MOU 체결¹⁹⁾

-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과 함부르크항만청(HPA, Hamburg Port Authority)이 4개 학술기관과 함께 해사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서명 기관은 싱가포르공과대학교(SIT), 싱가포르기술디자인대학교(SUTD), 함부르크대학교, 함부르크공과대학교 등 4개 학술기관으로 구성됨
 - 이번 MOU는 '24년 두 항만당국이 체결한 디지털화·탈탄소화·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기반으로 추진됨
- 협력 범위는 항만 사이버보안 시스템, 무인 수상선박, 원격 선박 운항, 선내 운영 기술 시스템, 선박-육상 간 연결성 등 항만 운영 전반의 사이버 복원력 강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춤
 - 사이버보안 모범 사례 교류를 통해 양 항만 생태계 전반의 사고 대응 역량 및 대비 태세를 강화할 계획임
 - 항만 디지털화·연결성 심화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핵심 운영 과제로 규정하고, 공동 훈련 및 기술 역량 개발을 추진함
- 약 10년간 이어온 양 항만당국의 신뢰 기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보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시의적절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항만 운영 전반에 걸친 사이버 복원력을 제고할 계획임
 - 이번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보안 강화 측면에서도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9) Container News(2026.04.20.), [https://container-news.com/singapore-and-hamburg-port-authorities-sign-cybersecurity-mou/\(2026.04.26. 검색\)](https://container-news.com/singapore-and-hamburg-port-authorities-sign-cybersecurity-mou/(2026.04.26. 검색))

2 일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응 원유 대체 수송 루트 모색²⁰⁾

-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원유 수송 대체 루트 3개를 검토하며 중동 산유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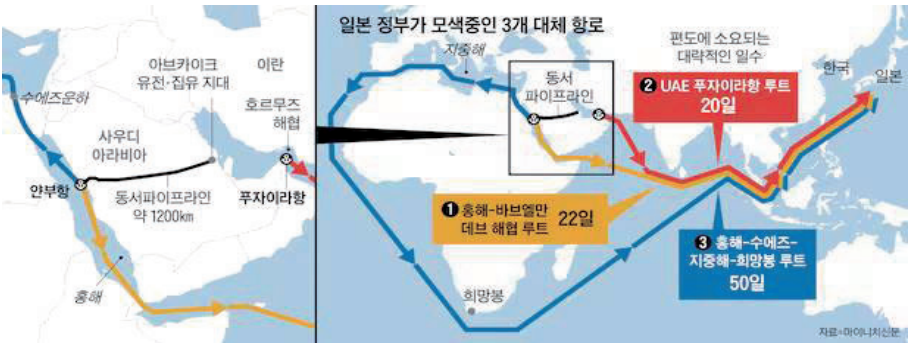
 - 일본은 하루 약 200만 배럴의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며, 주요 공급국은 UAE(43.3%)와 사우디아라비아(39.4%)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직접적 영향권에 놓임
 - 일본 경제산업상이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 및 UAE 산업기술부 장관과 온라인 회의를 갖고 대체 루트 협력을 요청함
-  검토 중인 대체 루트는 ①홍해-바브엘만데브 해협 루트, ②UAE 푸자이라항 루트, ③홍해-수에즈 운하-지중해-희망봉 루트 등 세 가지임

 - ①홍해 루트는 사우디 동부에서 안부항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수송 후 홍해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약 13,890km·22일 소요로 호르무즈 루트와 유사한 수준이며, 다만 파이프라인 용량(일 700만 배럴) 한계로 타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며, 후티 무장세력의 공격 위험이 상존함
 - ②푸자이라항 루트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UAE 푸자이라항에서 적재하는 방식으로 약 20일이 소요되며, 일본은 5월부터 본격 공급 개시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란의 공격 위험이 지속됨
 - ③희망봉 루트는 홍해·수에즈 운하·지중해·희망봉을 순환하는 최장 루트로 약 50일이 소요되며, 상대적으로 안전하나 운송비 급등과 대형 유조선의 수에즈 운하 통과 제한이 과제로 지적됨
-  수송 루트별로 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가운데, 일본은 국제 정세에 따라 가장 현실적인 루트를 선택한다는 방침으로 전략비축유 방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추진할 계획임

 - 한국도 동일하게 홍해 루트를 검토 중인 만큼, 일본의 대응 전략이 한국에도 유효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어떤 루트를 선택하더라도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며,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체계 마련이 요구됨

20) The Chosun Daily(2026.04.08.), [https://www.chosun.com/english/world-en/2026/04/08/3QGYOXZKHZHTL3FY63PSD2HMY/\(2026.04.26. 검색\)](https://www.chosun.com/english/world-en/2026/04/08/3QGYOXZKHZHTL3FY63PSD2HMY/(2026.04.26. 검색))

일본 정부가 모색 중인
대체 항로



자료: The Chosun Daily(2026.04.08.), <https://www.chosun.com/english/world-en/2026/04/08/3QGYOXZKHZHATL3FY63PSD2HMY/>(2026.04.26.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 한국-인도 조선·항만 개발 협력 파트너십 체결²¹⁾

-  **한국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민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조선·항만 개발·해운 물류 분야를 포함한 광범위한 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함**

 - 이번 국민 방문은 8년 만에 이루어진 한국 정상외 인도 방문으로, 조선·항만·에너지 안보·산업협력·기술 등 50개 이상의 협력 사항에 합의함
 - 인도는 '30년까지 글로벌 조선 10위, '47년까지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조선 역량을 전략적 협력 기반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임
-  **한국 주요 조선사들의 인도 진출이 구체화되며 그린필드·브라운필드 조선 클러스터 개발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본격화됨**

 - HD한국조선해양(KSOE)은 코친 조선소와 협력을 발표했으며, 남인도 신규 조선소 개발을 위한 비구속적 MOU를 체결함
 - 삼성중공업은 구(舊) 릴라이언스 나발 피파바브 조선소를 운영 중인 Swan Defence and Heavy Industries와 파트너십을 체결함
 - 인도 정부는 한국 조선사를 그린필드 조선 클러스터의 전략적 앵커 파트너로 초청하며 설계·생산공학·첨단 제조 분야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함
-  **해양 장비·훈련·항만 개발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되며 인도 해양산업 전반으로 협력 범위가 확대됨**

 -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및 한국해양기자재협회(KOMEA)가 뭄바이에 사무소를 설립하며 현지 거점을 마련함
 - 인도의 약 32만 명 규모 선원 인력풀을 기반으로 양국 간 해기사 훈련 협력도 추진됨
 - 항만 개발 분야에서는 바드반 컨테이너항, 바후다 다목적 터미널, 딘다얄항 터미널 등을 포함해 향후 5년간 133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에 한국 항만 개발사 및 터미널 운영사의 참여를 초청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1) The Maritime Executive(2026.04.20.), <https://maritime-executive.com/article/india-and-south-korea-form-alliances-for-shipbuilding-and-port-development>(2026.04.27. 검색)

4 미국, 이란 항만 봉쇄 시행 및 해상 교역 전면 차단²²⁾

-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가 이란 항만에 대한 해상 봉쇄를 전면 시행하며 이란의 해상 경제 교역을 완전히 차단함
 - 봉쇄는 이란 연안 및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시행 36시간 이내에 해상 교역이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발표됨
 - 봉쇄 작전에는 해군·해병대·공군 등 1만 명 이상의 미군 병력과 함께 군함 및 항공기가 투입됨
- 봉쇄 시행 첫 24시간 내 6척의 상선이 미군 명령에 따라 이란 항만으로 회항하였으며, 이란산 원유를 적재한 유조선 2척도 억류 지시를 받음
 - 이란의 차바하르항을 출발한 유조선 2척이 미 해군 구축함으로부터 무선 교신을 통해 회항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 이란 경제의 약 90%가 해상 국제교역에 의존하고 있어 봉쇄 조치의 경제적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 봉쇄 조치는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중 미-이란 간 협상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것으로, 국제 유가와 글로벌 해운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침
 - 유가는 봉쇄 시행 직후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했다가 추가 협상 기대감으로 일부 하락함
 - 이란은 봉쇄가 현재 유지 중인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경고함
 - 현재 휴전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만큼 이란의 대응 여부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및 글로벌 해운 환경의 추가 불안정화 가능성이 제기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2) Aljazeera(2026.04.15.), <https://www.aljazeera.com/economy/2026/4/15/us-military-says-blockade-of-iran-ports-completely-halts-economic-trade>(2026.04.27. 검색)

3) 미주



① 현대글로벌비스, 미국 LA·서배너 물류거점 확충으로 네트워크 강화²³⁾

-  현대글로벌비스는 미서부 지역에 LA복합물류센터 개설을 통해 서부 물류 대응 역량을 강화함

 - 캘리포니아주 LA에 1만 2천 m² 규모 복합물류센터를 개설했으며, 롱비치항과 공항에서 차량 25분 거리에 위치함
 - 환적(트랜스로딩), 항공, 보관·유통 서비스를 통합 운영해 긴급 화물 대응 속도와 비용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임
 - 시장 상황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고객사 물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미 동부지역에는 서배너 통합창고 개설로 동남부 생산 연계 물류 기반을 확보함

 - 조지아주 서배너에 6만 9천 m² 규모 통합창고를 구축해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아메리카 (HMGMA) 가동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고 있음
 - 생산·공급 물량을 집약 관리하는 통합물류센터로서 원자재 수입부터 완제품 수출까지 연계 처리 기능을 수행함
 - 서배너항을 중심으로 제조·물류 인프라가 확장되는 가운데 안정적 물류 처리 기반을 마련함
-  미국 동·서부 핵심 거점 동시 확충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평가됨

 - 동부 생산 거점과 서부 수출입 관문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주 지역 물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구조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3) 비즈니스포스트(2026.04.15.),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5752\(2026.04.24. 검색\)](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5752(2026.04.24. 검색))

2 한국-멕시코 간 물동량 두 자릿수 증가²⁴⁾

- 
농산물 수요 증가와 항만 혼잡에 따른 물류 적체 영향으로 중남미항로 운임이 전월 대비 급등했음
 - 상하이발 남미 동안 산투스행 3월 평균 운임은 TEU당 2,545달러로, 2월 평균 1,315달러 대비 94% 상승함
 - 남미 서안 만사니요도 3월 평균 2,510달러로 전월 대비 99% 급등함
 - 부산발 중남미 동안행 운임은 3월 평균 FEU당 2,459달러로 전월 대비 58% 상승했으며, 서안행은 93% 급등함
- 
한국-중남미 컨테이너 물동량은 멕시코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월 한국-중남미 물동량은 23만 1,000TEU로 전년 대비 3% 증가했으며, 수출은 6% 늘고 수입은 4% 감소함
 - 멕시코는 7만 5,000TEU로 전년 대비 29% 증가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함
 - 그 외에도 칠레 16%, 브라질 5% 증가하는 등 주요 교역국 전반에서 물동량이 확대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4) 코리아쉬핑가제트(2026.03.31.),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46877(2026.04.24. 검색)

3 미국, 남미 내 중국 항만 운영·건설 전방위 견제²⁵⁾²⁶⁾

-  미국이 브라질 산투스항 운영권 입찰 개입과 파나마 운하 운영권 박탈에 이어, 중남미 내 중국 관련 항만 건설 23건을 ‘이중 용도’ 자산으로 규정하며 전방위 견제에 나섬
 - 미군 남부사령부는 중남미 항만 프로젝트 23건과 우주시설 12곳을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이중 용도로 간주해 감시 중이라고 밝힘
 - 브라질 산투스항 ‘테콘 산토스 10’ 컨테이너 터미널 입찰에서 중국 기업 배제를 공개 요구했으며, 중국 국영 해운사 코스코는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임
 - 파나마 대법원 판결로 홍콩 CK허치슨의 운하 항구 운영권이 상실됐고, 미국은 이를 안보 우려 차원에서 지속 제기해옴
-  미국은 서반구 내 전략 거점에서 중국의 항만 소유·운영 확대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지정학적 영향력 차단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
 - 페루 찬카이항 운영과 관련해 군용 겸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중국의 상업 프로젝트 전반을 군사적 잠재성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 국방부는 파나마 운하와 인접 국가 등 주요 지역에서 적대 세력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 중국의 핵심 광물 채굴·가공 확대 역시 미국 국방 산업 기반에 장기적 위협 요인으로 지적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5) 연합뉴스(2026.03.17.),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7120900009?input=1195m>(2026.04.24. 검색)

26) 뉴시스(2026.03.18.),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18_0003552927(2026.04.24. 검색)

4) 유럽



1 뷔스 터미널 에임스하번(Buss Terminal Eemshaven), 신규 중량물 부두 완공²⁷⁾

- 네덜란드 에임스하번(Eemshaven) 지역에 위치한 뷔스 터미널 에임스하번은 윈드키(WINDQUAY) 프로젝트를 통해 신규 중량물 부두를 완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상풍력단지 2개 사업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처리 역량을 확보함
- 이번 인프라 확장은 항만 소유자인 Groningen Seaports와의 협력 하에 추진되었으며, 유럽 기후·인프라·환경 집행기관(CINEA, European Climate,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Executive Agency)의 공동 자원 지원을 받아 완료됨
- 윈드키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율리아나하번(Julianahaven) 기존 부두의 하중 지지 능력 강화로, 보강 이전 $6\text{ton}/\text{m}^2$ 에 불과하던 부두 적재 허용 하중을 $40\text{ton}/\text{m}^2$ 로 대폭 상향함
- 부두 전면 해저 지반도 대규모로 개량하여 차세대 잭업(jack-up) 설치선이 부두벽 근접 계류 후 다리를 안전하게 내리고 대형 풍력 터빈 부품을 하역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
- 에임스하번은 유럽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네덜란드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약 3분의 1이 해당 항만을 통해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뷔스 터미널 에임스하번 중량물 부두 전경



자료: WorldCargo News(2026.04.18.), <https://www.worldcargonews.com/ports-terminals/2026/04/buss-terminal-eemshaven-completes-new-heavy-lift-quay/>(2026.04.23.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7) WorldCargo News(2026.04.18.), <https://www.worldcargonews.com/ports-terminals/2026/04/buss-terminal-eemshaven-completes-new-heavy-lift-quay/>(2026.04.23. 검색)

2 APM 터미널 발렌시아, '49년까지 운영권 연장 및 육상전원공급장치 도입 계획 확정²⁸⁾

-  발렌시아항만청 이사회는 APM 터미널 발렌시아에 대한 8년 운영권 연장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 기간은 스페인 항만법상 허용되는 최장 기간인 '49년까지 연장됨

 - 이번 연장은 기존 운영권 가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1,000만 유로 이상의 신규 투자 계획을 조건으로 하며, APM 터미널은 '99년 발렌시아항 운영 개시 이후 계약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왔음
-  신규 투자의 핵심은 레반테 부두(Levante Quay) 전력 인프라 구축으로, APM 터미널은 해당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장치(OPS, Onshore Power Supply)를 최초 설치하고 전력 공급 센터 및 변환·변압 설비를 구축할 계획임

 - 이번 OPS 도입은 발렌시아항 내 총 4기 설치를 목표로 하는 APM 터미널의 OPS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EU 2030 의무화 기준에 따라 정박 중 선박의 보조 엔진 가동을 중단하고 육상 전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해당 사업은 발렌시아항 재단이 주관하고 유럽 연결 인프라 지원 펀드(CEF, Connecting Europe Facility)의 재원을 지원받는 OPS 발렌시아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됨
-  APM 터미널은 '30년까지 운영 배출량 70% 감축, '4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는 탈탄소화 전략을 추진 중임

 - 레반테 부두 펜더(fender)도 개량하여 머스크와 하팍로이드의 제미니(Gemini Cooperation) 체제 하에 투입되는 초대형 선박의 기항을 지원할 계획이며, 최대 흘수 16.5m급 아시아-지중해 노선 선박 수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8) WorldCargo News(2026.04.23.), <https://www.worldcargonews.com/news/2026/04/apm-terminals-locks-in-valencia-deal-until-2049-plans-ops-rollout/> (2026.04.23. 검색)

5) 오세아니아



① 호주 타운스빌항, 14헥타르(ha) 규모 프로젝트 화물 야적장 준공²⁹⁾

- 호주 퀸즐랜드(Queensland) 주정부는 '26년 4월 2일 타운스빌항(Port of Townsville) 내 이스트포트 구역(East Port Precinct)에 14헥타르(ha) 규모의 프로젝트 카고 레이아웃(laydown) 야적장이 준공됐다고 발표함

 - 동 시설은 최대 100m 길이의 풍력터빈 블레이드 등 대형·복합 화물의 임시 보관 및 하역을 목적으로 조성됐으며, 핵심광물·첨단제조·재생에너지 분야 장비 및 설비의 해상 수송 허브 기능을 수행할 예정임
- 노스퀸즐랜드 지역은 핵심광물 및 첨단제조업 분야에서 대형 장비의 항만 이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퀸즐랜드주 교통부 장관은 동 시설이 타 항만으로의 장거리 운송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써 물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브루스 하이웨이(Bruce Highway)의 중량 차량 통행량을 줄일 것이라고 밝힘
 - 타운스빌항 운영·프로젝트·안전 총괄은 광범위한 토목공사, 포장 공사 및 배수 시설 개선을 통해 대량의 중량 프로젝트 화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선박에서 현장까지 프로젝트 화물의 효율적인 수입·보관·운송이 가능해졌다고 밝힘.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9) Queensland Government(2026.04.02.), [https://statements.qld.gov.au/statements/104837\(2026.04.23. 검색\)](https://statements.qld.gov.au/statements/104837(2026.04.23. 검색))

6) 아프리카



1 로비토 회랑, 홍수로 철도 운행 전면 중단³⁰⁾

- ’26년 4월 12일 폭우로 앙골라 벵겔라(Benguela) 남동쪽 약 140km 지점의 궤도가 손상되어 로비토 회랑(Lobito Corridor) 철도 운행이 전면 중단됨

 - 이번 운행 중단은 이반호 마인스(Ivanhoe Mines)·트라피구라(Trafigura)가 콩고민주공화국(DRC)산 구리·코발트 첫 상업 선적에 성공한 직후 발생해 대서양 수출 대안 노선에 차질이 생김
 - 손상 구간은 궤도 유실과 교량 피해가 주된 원인으로 보고되며, 운행 재개까지 DRC발 구리·코발트 수출 물량은 잠비아 경유 탄자니아·모잠비크 항만 등 대체 육로로 우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
 - 로비토아틀란틱철도(LAR, Lobito Atlantic Railway) 컨소시엄은 인프라 개선을 위해 7억 5,300만 달러 규모 재정 투입을 추진 중이며, 이번 홍수 피해는 동 투자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 로비토 회랑은 미국·유럽 파트너가 지원하는 중앙아프리카 핵심광물 수출 노선으로, 최근 수주간 집중 호우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

 - 4월 초에도 폭우로 약 200가구가 파괴되고 최소 23명이 사망했으며, 앙골라 전역 사망자는 39명에 달함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30) Mining.com(2026.04.13.), <https://www.mining.com/web/angola-flooding-halts-traffic-on-lobito-rail-disrupting-exports/>(2026.04.27.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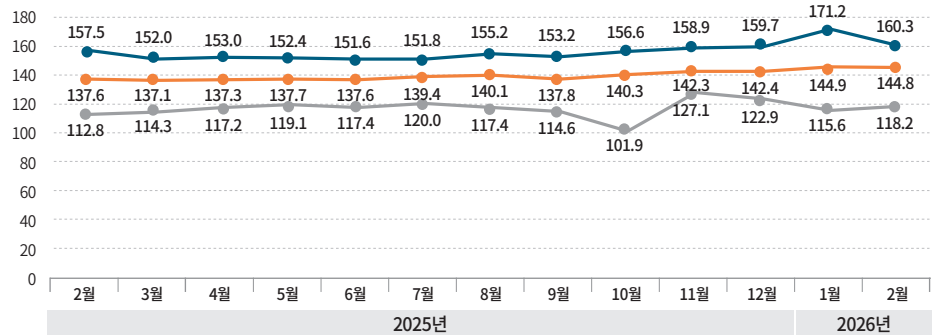
'26년 2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년 동월 대비 전체·중국·유럽 모두 증가³¹⁾

① '26년 2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0.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한 144.8p를 기록함

- '25년 상반기 보험세를 보이던 지수는 하반기에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6년 2월은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 144.8p를 기록함
- 중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는 '25년 6월 이후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6년 중국 춘절 전에 전월 대비 크게 증가한 다음 2월에는 6.3% 하락하면서 160.3p를 기록함
- 유럽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는 10월 큰 낙폭 후에 반등하였으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6년 2월에는 전월 대비 2.2% 증가한 118.2p를 기록함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 Total
— China Index
— North Range Index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Total	137.6	137.1	137.3	137.7	137.6	139.4	140.1	137.8	140.3	142.3	142.4	144.9	144.8	-0.1	5.2	
China Index	157.5	152.0	153.0	152.4	151.6	151.8	155.2	153.2	156.6	158.9	159.7	171.2	160.3	-6.3	1.8	
North Range Index	112.8	114.3	117.2	119.1	117.4	120.0	117.4	114.6	101.9	127.1	122.9	115.6	118.2	2.2	4.8	

주: 2015=100, Total 및 North Range Index는 계절 및 근무일 조정

자료: ISL(2026.03.27.), <https://www.isl.org/index.php/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dex-1225>(2026.04.24.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1) ISL(2026.03.27.), <https://www.isl.org/index.php/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dex-1225>(2026.04.24.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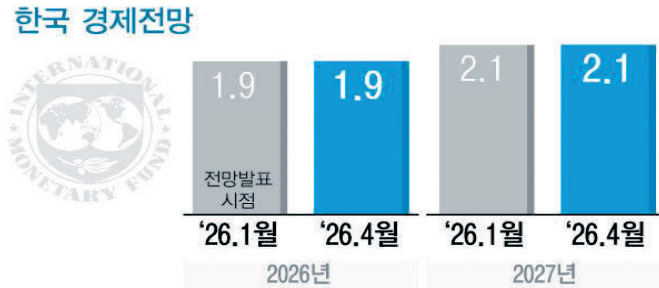
2

국제통화기금(IMF),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3.1%로 하향 조정, 전쟁 장기화 시 2%대 둔화 전망³²⁾³³⁾

- IMF는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영향을 반영해 '26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1%로 하향 조정함
- 전쟁이 단기간 내 진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수치이며, 전쟁이 악화될 경우 성장률은 2.5% 수준, 심각한 경우 2% 내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제시함
 -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위험회피 심리 확산이 세계경제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은 올해 1.9%, 내년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기존 전망이 유지됐으며, 미국과 유로존은 소폭 하향 조정됨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 전망

(단위 : %)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세 계	3.3	3.1	3.2	3.2
선진국	1.8	1.8	1.7	1.7
미국	2.4	2.3	2.0	2.1
유로존	1.3	1.1	1.4	1.2
독일	1.1	0.8	1.5	1.2
프랑스	1.0	0.9	1.2	0.9
이탈리아	0.7	0.5	0.7	0.5
일본	0.7	0.7	0.6	0.6
영국	1.3	0.8	1.5	1.3
한국	1.9	1.9	2.1	2.1
신흥개도국	4.2	3.9	4.1	4.2
중국	4.5	4.4	4.0	4.0
인도	6.4	6.5	6.4	6.5
러시아	0.8	1.1	1.0	1.1

자료: 뉴시스(2026.04.1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14_0003591153(2026.04.24. 검색)

32) 연합뉴스(2026.04.14.), <https://www.yna.co.kr/view/AKR20260414169551071?input=1195m>(2026.04.24. 검색)

33) 뉴시스(2026.04.1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14_0003591153(2026.04.24. 검색)

- 다만, 중동사태 장기화 여부에 따라 한국 성장률 전망이 1.0~2.1%까지 기관별로 상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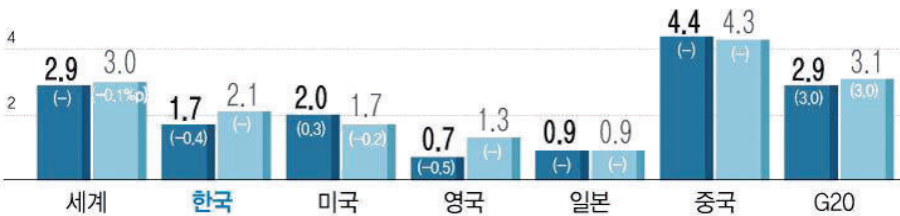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하며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에 따른 생산 차질 위험을 반영함
 - 글로벌 투자은행(IB) 평균 전망치는 2.1%, ADB와 AMRO는 1.9%를 제시한 반면, 일부 기관은 1.0% 수준까지 둔화 가능성을 제기함
 -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경이 성장률을 0.2%p 제고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쟁이 6~7월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2% 성장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경제 전망

OECD 세계경제전망 단위: %

● 2026년 ● 2027년

6 ※3월 전망 기준 ()안은 2025년 12월 전망 대비 조정폭, %p



자료: 뉴시스(2026.04.1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14_0003591153(2026.04.24. 검색)

- 한편, IMF는 중동사태 충격이 성장률보다 물가에 더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함

 - 세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4.4%로 1월 대비 0.6%p 상향 조정됨
 - 전쟁이 악화될 경우 세계 물가상승률은 5.4% 수준, 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6%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시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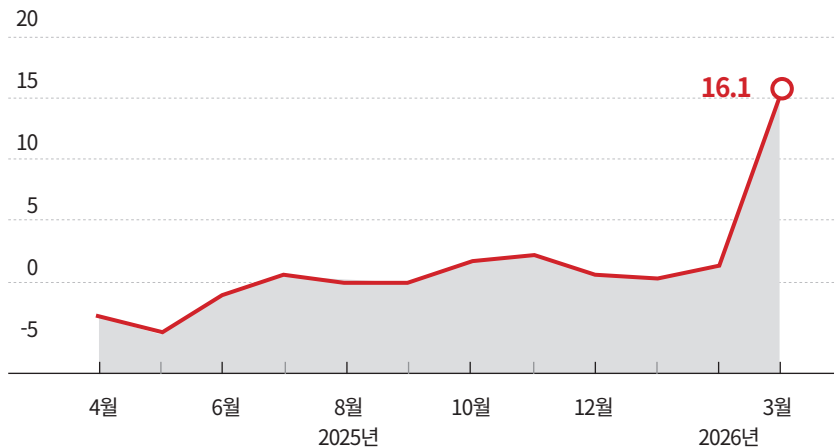
3 중동사태로 인한 수입물가 전월 대비 16.1% 급등³⁴⁾

- 중동사태로 3월 원화 기준 수입물가가 전월 대비 16.1% 상승하며 '98년 1월 이후 28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함
 - 수입물가지수는 169.38(2020=100)로 집계됐으며, 수입물가는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 전년 동월 대비 18.4% 상승했음
 - 국제유가 급등과 원·달러 환율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
- 국제유가 폭등으로 원유 수입물가가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함
 - 월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2월 68.40달러에서 3월 128.52달러로 87.9% 상승함
 - 원유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88.5% 상승했으며, 계약통화 기준으로도 83.8% 올라 '74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함
 - 원재료 가격이 40.2% 상승하는 등 원자재 중심의 급등세가 두드러졌음
- 수입물가 급등이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됨
 - 3월 석유류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10.4% 상승했으며, 전쟁 장기화 시 고유가와 원재료 공급 차질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수출물가도 전월 대비 16.3% 상승하며 '28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함

수입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자료: 한국은행, 전기대비, 원화 기준)



자료: 뉴시스(2026.04.1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14_0003591153(2026.04.24.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4) 아시아경제(2026.04.15.),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41418010659060>(2026.04.24. 검색)

2) 양곡



1 '26년 3월 CBOT 곡물 가격, 전 품목 상승 전환·대두 강세 지속

- '26년 3월 시카고선물거래소(CBOT) 기준 주요 곡물 가격은 밀·대두·옥수수 전 품목이 전월 대비 상승 전환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품목별 상승 폭과 전년 대비 흐름에서 차별화가 나타남

 - 대두는 전월에 이어 강세 흐름을 이어가며 주요 곡물 중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함
 - 밀은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며 가격 회복 흐름을 지속함
 - 옥수수는 전월 소폭 하락에서 반등하며 상승 전환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함
- 밀 가격은 219달러/톤으로 전월(202달러/톤) 대비 8.8%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9.6% 상승한 수준임

 - 전월에 이어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년 동월 대비로도 플러스 전환에 성공함
 -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공급 불확실성을 자극하며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대두 가격은 430달러/톤으로 전월(412달러/톤) 대비 4.6%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6.5%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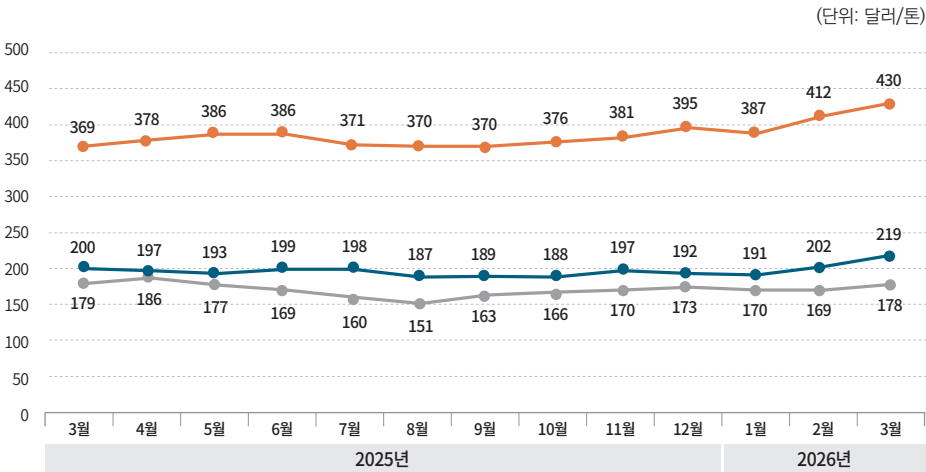
 - 주요 곡물 중 전년 동월 대비 상승 폭이 가장 크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 지속적인 수요 강세와 수급 불확실성이 반영되며 강세 흐름이 유지됨
- 옥수수 가격은 178달러/톤으로 전월(169달러/톤) 대비 5.2% 상승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함

 - 전월 하락에서 반등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여전히 소폭 하락세를 유지함
 - 글로벌 공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상승 폭은 타 품목 대비 제한적인 모습임

03 품목 및 산업 동향

세계곡물 가격 추이

- 밀
- 대두
- 옥수수



(단위: 달러/톤)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밀	200	197	193	199	198	187	189	188	197	192	191	202	219	8.8	9.6
대두	369	378	386	386	371	370	370	376	381	395	387	412	430	4.6	16.5
옥수수	179	186	177	169	160	151	163	166	170	173	170	169	178	5.2	-0.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https://www.krei.re.kr/grain/page/242>(검색일: 2026.04.27.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중동 분쟁 여파로 '26/27 세계 곡물 생산 전망 하향 조정 및 공급 불안 지속³⁵⁾

-  국제곡물위원회(IGC)가 중동 분쟁의 영향으로 '26/27 시즌 세계 곡물 생산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글로벌 곡물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

 - IGC는 '26/27 시즌 총 곡물 생산량 전망치를 300만 톤 하향한 24억 1,400만 톤으로 조정하였으며, 소비량 전망치(24억 3,700만 톤) 역시 300만 톤 낮췄으나 여전히 생산량을 상회하는 수준임
 - 생산량이 소비량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글로벌 곡물 수급 불균형 우려가 심화됨
-  미국 농업경제는 곡물 공급 과잉·상호 관세·비료 및 디젤 가격 급등으로 타격을 받는 가운데, GLP-1 트렌드에 따른 단백질 강화 식품 수요 증가로 두류 작물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함

 - 완두·렌틸콩·병아리콩 등 두류는 전통적인 단백질 공급원을 대체하는 수요 증가세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
 - 미국 내 밀 가격 상승으로 미국 구매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폴란드산 제분용 밀을 대안으로 구매하는 움직임도 나타남
 - 폴란드산 밀 3만 톤 규모 선적 4건이 미국 동부 연안 제분업체 향으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짐
-  아르헨티나 케켄항 트럭 운송업자 파업으로 곡물 선적이 차질을 빚으며 글로벌 곡물 공급망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부각됨

 - 4월 7일부터 시작된 파업으로 최소 18척의 곡물·유지작물 화물선 운항이 지연되었으며, 수출업체들의 손실 규모는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트럭 운송업자들은 중동 분쟁에 따른 연료 가격 30% 급등을 이유로 운임 인상을 요구하며 바이아블랑카 및 케켄 항구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중동 분쟁의 여파가 연료비 상승→물류 비용 증가→항만 운영 차질로 이어지는 연쇄적 공급망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도자료(2026.04.24.), [https://www.krei.re.kr/grain/page/265?cmd=view&pst=505064\(2026.04.27. 검색\)](https://www.krei.re.kr/grain/page/265?cmd=view&pst=505064(2026.04.27. 검색))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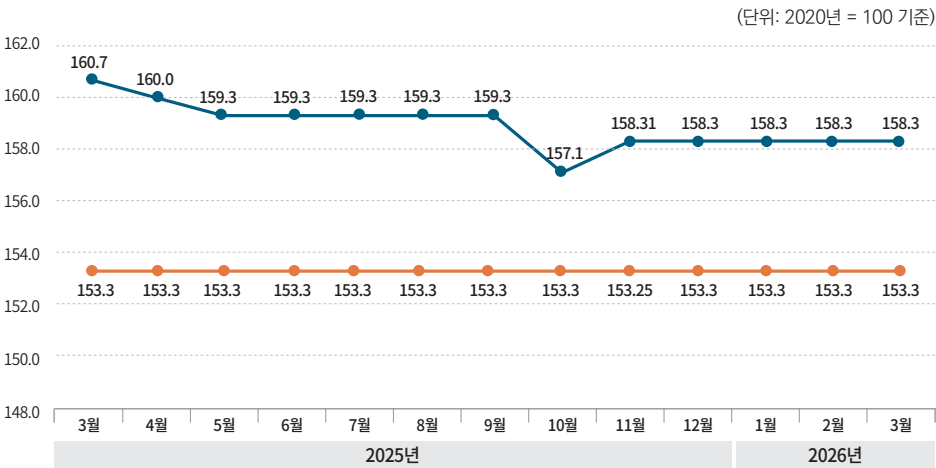


1 '26년 3월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보합세 지속

- '26년 3월 포틀랜드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는 158.3p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고로슬래그 시멘트도 153.3p로 보합세를 지속함
 - 포틀랜드 시멘트는 '25년 10월 157.1p로 일시 하락한 이후 11월 반등을 거쳐 158.3p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4개월째 이어가고 있음
 - 전년 동월 대비로는 1.5% 하락하며 완만한 약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장기간 가격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함
 - '25년 2월 이후 14개월 연속 153.3p 수준을 유지하며 변동성 없는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음
 - 전월 대비 및 전년 동월 대비 모두 0.0%로 가격 안정세가 지속됨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포틀랜드
● 고로슬래그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60.7	160.0	159.3	159.3	159.3	159.3	159.3	157.1	158.31	158.3	158.3	158.3	158.3	0.0	-1.5	
고로슬래그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25	153.3	153.3	153.3	153.3	0.0	0.0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earch/search.do>(2026.04.27. 검색)

2 원가 상승·출하량 감소 이중고로 시멘트 업계 경영난 심화³⁶⁾

-  원·달러 환율 상승과 국제유가 인상이 맞물리며 시멘트 주요 원료인 유연탄 수입 가격이 연초 대비 30% 이상 급등하고, 건설 경기 침체와 출하량 감소가 겹치며 시멘트 업계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
 - 시멘트 제조 원가의 20~30%를 차지하는 유연탄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며, 원·달러 환율이 연초 1,446원대에서 최근 1,530원대로 상승하며 수입 원가 부담이 크게 확대됨
 - 요소(중국 수출 금지), 설비 유지·보수 부품 등 수입 의존 원자재 전반의 비용이 동반 상승하며 원가 상승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시멘트 업계는 원가 상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건설·레미콘 업계의 반발로 판매 단가 인상이 어려워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가 지속됨
 - 전기료 인상 등 추가적인 원가 상승 요인이 산적해 있으나, 건설 경기 침체 속 레미콘·건설사의 연쇄 반발로 단가 인상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원·달러 환율 10% 상승 시 쌍용C&E 13억 원, 삼표시멘트 5억 9,100만 원, 한라시멘트 3억 2,202만 원 등 업체별 세전순이익 감소가 예상됨
-  내수 출하량 감소가 3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업황 반등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임
 - '25년 시멘트 내수 출하량이 3,650만 톤 이하로 하락하며 '90년대 초 이후 처음으로 4,000만 톤 선이 무너짐
 - '26년에도 건설경기 회복세가 더디게 전망되면서 출하량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업계에서는 고정비 절감·인력 효율화 외에 뚜렷한 자구책이 없는 상황으로, 시멘트만을 본업으로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6) 철강금속신문(2026.03.12.),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6308>(2026.03.26.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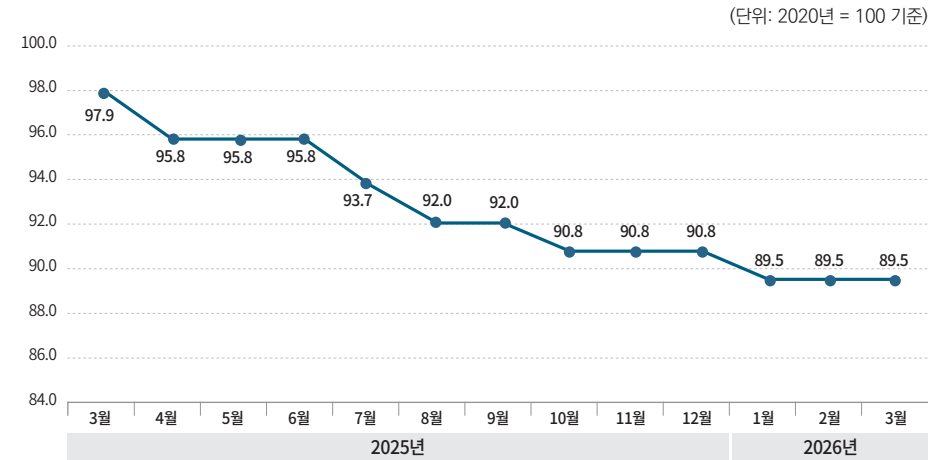
4) 모래



1 '26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과 동일한 89.5% 기록

- '26년 3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89.5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함
- '26년 1월 이후 3개월 연속 89.5를 유지하며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음
- '25년 3월(97.9)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왔으나 '26년 1월부터 하락세가 멈추고 안정적인 흐름으로 전환됨
- 전년 동월 대비로는 8.6% 하락하며 여전히 약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97.9	95.8	95.8	95.8	93.7	92.0	92.0	90.8	90.8	90.8	89.5	89.5	89.5	0.0	-8.6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earch/search.do\(2026.04.27. 검색\)](https://kosis.kr/search/search.do(2026.04.27.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폐석재 순환자원 지정으로 골재 원료 활용 기반 확대³⁷⁾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골재 원료로서의 폐자원 활용 촉진에 나섬
 -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정해진 용도·방법·기준 준수 시 별도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어 골재 원료로의 활용이 보다 용이해짐
 - 폐석재는 암석 채석·가공 과정에서 토사와 섞이지 않은 깨진 석재·자투리돌 등으로, 천연석재와 성분이 동일하여 양질의 골재 원료로 활용 가능성이 높음
- 
폐석재의 순환자원 지정을 통해 골재·콘크리트 등 비금속광물제품 제조 시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어 순환골재 공급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천연골재 수급 불안정과 모래 생산자물가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세 속에서 폐석재의 대체 골재 원료로서의 역할이 주목됨
 - 채석·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를 골재 원료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 촉진과 함께 골재 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폐자원 순환이용 확대는 골재 산업의 원료 조달 구조 다변화와 함께 친환경 건설자재 공급 기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됨
 - 기존 천연골재 중심의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순환골재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골재 수급 체계가 전환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음
 - 향후 건설 경기 회복 시 안정적인 골재 원료 확보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계 부담 완화와 순환이용 활성화가 지속 추진될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7) 전기신문(2026.04.06.),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747>(2026.04.27. 검색)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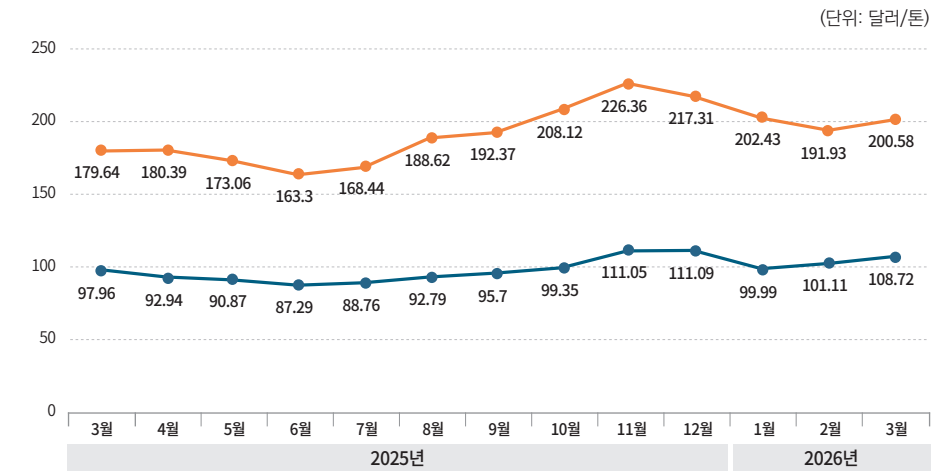


1 '26년 3월 석탄 가격, 원료탄·점결탄 모두 반등

- '26년 3월 석탄 가격은 원료탄과 점결탄 모두 전월 대비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도 각각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함
 - 원료탄(Thermal)은 전월 대비 7.5% 상승한 톤당 108.72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월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점결탄(Coking)은 전월 대비 4.5% 상승한 톤당 200.58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5년 11월 톤당 226.36달러 고점 이후 세 달 연속 하락하였으나 상승세로 전환함

석탄 가격 추이

원료탄(Thermal)
점결탄(Coking)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원료탄	97.96	92.94	90.87	87.29	88.76	92.79	95.7	99.35	111.05	111.09	99.99	101.11	108.72	7.5	11.0
점결탄	179.64	180.39	173.06	163.3	168.44	188.62	192.37	208.12	226.36	217.31	202.43	191.93	200.58	4.5	11.7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6.04.23](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6.04.23) 검색)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 중동 분쟁發 공급망 차질, 아시아 원료탄 시장 2분기 강세 전망³⁸⁾

 중동 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아시아 해상 원료탄(metallurgical coal) 시장이 2분기에도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S&P Global에 따르면 중동 분쟁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해상 운임 상승으로, '26년 3월 호주 동부 해안에서 인도 동부 해안까지 파나마스(Panamax) 운임은 톤당 평균 25.18달러를 기록해 전월(16.76달러) 대비 50.2%, 전년 동월(14.54달러) 대비 73.2% 상승함
- 호주-중국 칭다오 구간 운임도 톤당 22.38달러로 전월 대비 46.4%, 전년 대비 70.8% 상승함
- 원료탄 가격은 디젤 공급 부족이 호주 광산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4월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플래츠(Platts) 프리미엄 저휘발분 강점결탄(PLV HCC) FOB 호주 가격은 1분기 중 톤당 18.80달러 상승해 3월 31일 236.80달러로 마감했으며, 2월 4일에는 1년 6개월 내 최고치인 252.50달러를 기록함

 인도 제철사들의 장기계약 전환으로 2분기 현물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몬순 시즌 대비 재고 확충 수요가 가격을 지지할 전망이다

- 기존에 현물 시장에 의존하던 인도 제철사들이 '26년 4월 신회계연도부터 호주 공급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물량을 늘리면서 현물 수요 감소가 예상됨
- 다만 6~9월 몬순 시즌을 앞두고 2분기 중 재고 확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S&P Global Energy CERA 애널리스트들은 중동 분쟁이 단기적으로 원료탄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킬 것으로 전망하며, 해상 운임 상승과 석유·LNG 공급 부족 상황에서 석탄의 대체재 역할이 원료탄 가격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함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38) S&P Global(2026.04.24.), <https://www.spglobal.com/energy/en/news-research/latest-news/coal/042426-trade-review-asian-met-coal-market-sees-pricing-support-in-q2-from-middle-east-war>(2026.04.27.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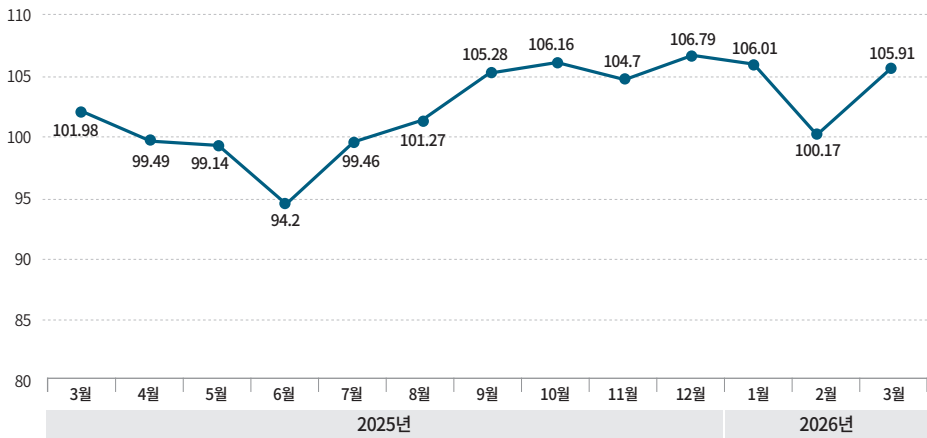
6) 철광석



철광석 가격 추이

1 '26년 3월 철광석 가격, 전월 대비 반등

- '26년 3월 철광석 가격(호주산 62%, 중국 CNF)은 전월 대비 5.7% 상승한 톤당 105.91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함
- '25년 12월 톤당 106.79달러 이후 '26년 1~2월 두 달 연속 하락하며 100.17달러까지 떨어졌으나, 3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하며 105달러 선을 회복함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01.98	99.49	99.14	94.2	99.46	101.27	105.28	106.16	104.7	106.79	106.01	100.17	105.91	5.7	3.9

주: 62% 분광 중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6.03.24](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6.03.24) 검색)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 중국, 철강 재고 감소·고로 가동률 상승에 철광석 수요 회복 조짐³⁹⁾

-  중국 철강 재고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고로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철광석 수요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
 - 4월 셋째 주 기준 중국 철강 재고가 전주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이는 유통 단계에서 소비가 공급을 상회하고 있음을 시사함. 다만 회복 속도는 완만하며 절대 수준은 여전히 전년 동기를 상회하고 있음
 - 재고 감소 추세는 통상 향후 4~8주 내 완제품 철강 가격 강세의 선행 지표로 해석되며, 시장 참가자들은 이를 근거로 철광석 수요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중국 고로 가동률이 전주 대비 상승해 가용 용광로 중 가동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항만 철광석 재고도 감소해 광석이 항만에서 제철소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음이 확인됨
-  다만 선철 생산량이 단기 정점에 근접하고 제철소 수익성이 손익분기점 수준에 머물러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임
 - 중국 선철(hot metal) 생산량이 단기 정점에 근접한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다수의 제철소가 손익분기점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어 재고 확충보다는 단기 소요량 충당에 집중하고 있음
 - 4월 18일 기준 호주산 62% Fe CFR 중국 가격은 전주 대비 톤당 1.75달러(+1.64%) 상승했으나, 구매 의욕이 약해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흐름이 예상됨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39) TISCO(2026.04.20.), [https://www.tiscoco.com/iron-ore-prices-rise-1-64-last-week-as-china-steel-inventories-fall-short-term-outlook-stable/\(2026.04.27. 검색\)](https://www.tiscoco.com/iron-ore-prices-rise-1-64-last-week-as-china-steel-inventories-fall-short-term-outlook-stable/(2026.04.27.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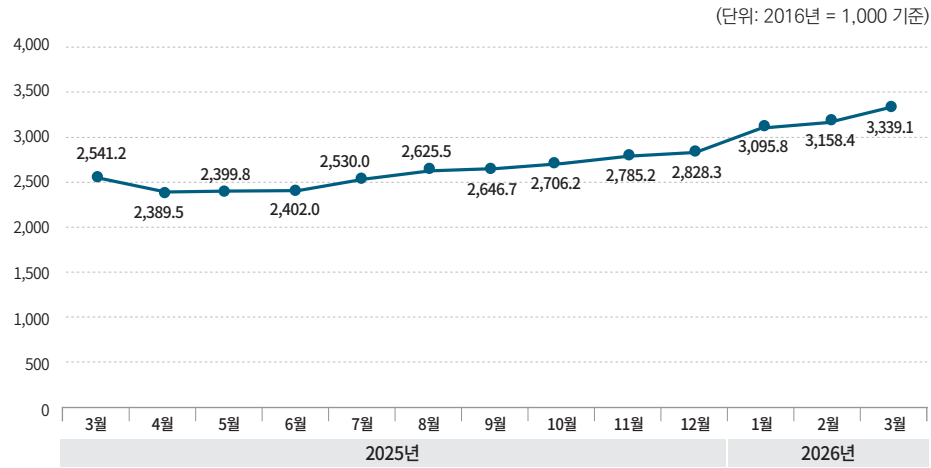
7) 기타광석



광물종합지수 추이

1 '26년 3월 광물종합지수, 전월 대비 5.7% 상승하며 상승세 가속

- '26년 3월 광물종합지수는 3,339.1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1.4% 상승함.
- '25년 4월 2,389.5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11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26년 들어 월평균 5% 이상의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지수	2,541.2	2,389.5	2,399.8	2,402.0	2,530.0	2,625.5	2,646.7	2,706.2	2,785.2	2,828.3	3,095.8	3,158.4	3,339.1	5.7	31.4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6.03.24. 검색\)](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6.03.24. 검색))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 세계 보크사이트 공급의 40% 이상을 담당하는 기니, '26년 4월부터 수출 상한 통제 시행⁴⁰⁾

- 기니(Guinea)는 '26년 4월부터 Chinalco, Alteo, Compagnie des Bauxites de Guinee(CBG), Alcoa 등 주요 광업사의 라이선스 초과분에 대한 수출 상한 통제를 시행함
- '25년 기니 보크사이트 수출은 1억 8,300만 톤(전년 대비 25% 증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함
- '26년 당초 수출 전망치는 2억 톤이었으나, 보크사이트 가격이 '25년 고점 대비 25~35% 하락하자 기니 정부가 공급량 억제를 공식화함
- 기니 수출의 70~74%가 중국으로 향하는 구조에서 중국 수요 둔화와 중동 분쟁발 운임 상승이 감소 결정의 주요 배경이 됨
- 한편 알루미늄(Aluminium) 가격은 3,000달러/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일부 로열티 수입 손실을 부분적으로 상쇄하고 있음
- 기니 정부는 단기 공급 억제와 함께 현지 가공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추진 중임. '27년 완공을 목표로 SPIC 정제소 첫 협약을 체결함
- '30년까지 알루미나(Alumina) 정제소 5~6개(연간 700만 톤 용량)를 구축할 계획임
- 이번 조치는 DR콩고(코발트)·짐바브웨(리튬) 등 아프리카 자원 수출국들이 원자재 수출 제한을 통해 자원 통제력을 강화하는 흐름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AL Circle은 이를 아프리카 자원국들의 공급 정책 변화로 기술함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40) AL Circle(2026.04.02.), <https://www.alcircle.com/news/guinea-conakry-limits-its-2026-bauxite-exports-despite-a-200-million-tonne-forecast-117870>(2026.04.24. 검색)

8) 목재



1 '26년 1~3월 국내 목재 주요 품목 수입, 전년 동기 대비 전반적 감소세 지속

- '26년 1~3월 국내 목재 수입은 주요 품목 전반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원목 수입량은 35만 1천㎥로 전년 동기(38만 1천㎥) 대비 7.8% 줄었으며, 제재목은 25만 7천㎥로 전년(33만 7천㎥) 대비 23.7% 감소함
 - 성형목재 수입량은 1만 3,546톤으로 전년 동기(1만 6,991톤) 대비 20.3% 감소함
- 가공도가 높은 보드류를 중심으로 수입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남
 - 합판은 31만 5천㎥로 전년 대비 4.3% 감소하였고, 파티클보드는 25만 6천㎥로 2.5%, 섬유판은 3만 7천㎥로 26.0% 줄어듦
 - 목재펠릿은 80만 8천 톤으로 전년 동기(103만 3천 톤) 대비 21.8% 감소하여 감소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단위)	2026년 누적 (1-3월)	2025년 누적 (1-3월)	증감률 (%)
원목(천㎥)	351	381	7.8%
제재목(천㎥)	257	337	-23.7%
성형목재(톤)	13,546	16,991	-20.3%
합판(천㎥)	315	329	-4.3%
파티클보드(천㎥)	256	340	-2.5%
섬유판(천㎥)	37	50	-26.0%
목재펠릿(천 톤)	808	1,033	-21.8%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6.04.23.), [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dId=3219418&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6.04.23. 검색\)](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dId=3219418&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6.04.23.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 중동 분쟁·물류 혼란으로 글로벌 목재 시장 전반에 비용 압력 가중⁴¹⁾

-  '26년 4월 초 기준 글로벌 목재 및 목재 제품 시장은 중동 분쟁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에너지 가격 변동성, 지속적인 물류 혼란이 맞물리며 교역 흐름·가격·생산 전반에 걸쳐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
 - 중앙·서아프리카 지역은 중국 수요의 일부 지지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에너지 공급·자금 조달 등 구조적 과제로 인해 시장 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태를 이어가고 있음
 - 가봉과 카메룬은 운영 여건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수출 비용 부담과 내륙 물류 병목이 여전히 상존함
-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동 분쟁의 영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제조업체들은 운임·연료·원자재 비용 급등을 경고하고 인도 목재 패널 생산업체 및 업계 단체들은 화학 물질·물류 비용 상승에 대응한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 베트남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관세 및 반덤핑 규제 압박으로 합판 수출 목적지를 중동·남아시아로 전환하고 있음
 - 더불어, 인도네시아는 시장 다변화 및 신규 물류 거점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가능성·탄소 관련 산림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브라질은 유럽의 강화된 규정 준수 요구에 대응하며 수출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페루 목재 부문은 수출 급감으로 업계 스스로 최근 25년래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밝힘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1) Interior Daily(2026.04.20.), <https://www.interiordaily.com/article/9830673/global-timber-markets-remain-under-pressure-as-conflict-and-costs-reshape-trade>(2026.04.23. 검색)

9) 고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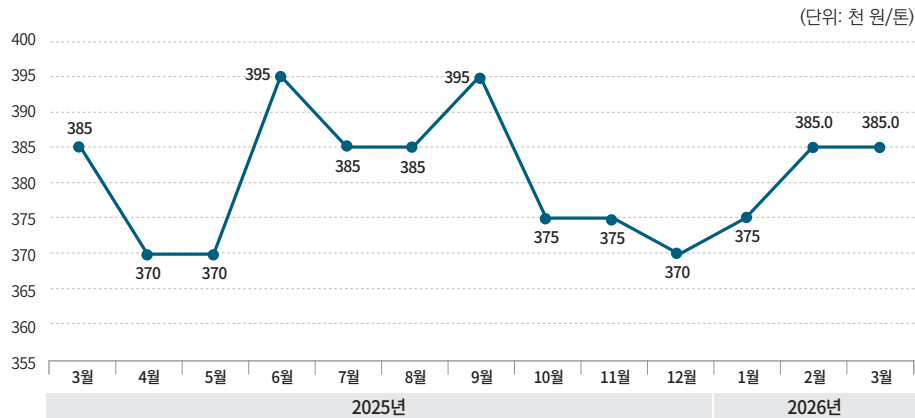


① 국내 고철(생철) 가격, '26년 3월 385천 원/톤 유지⁴²⁾

국내 고철(생철) 가격은 '26년 3월 385천 원/톤으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가 일단락됨

- '26년 3월 기준 385천 원/톤으로 전월(385천 원/톤) 대비 포함세를 나타냈으며, 전년 동월(385천 원/톤) 대비로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25년 12월 370천 원/톤까지 하락한 이후 '26년 1월 375천 원/톤, 2월 385천 원/톤으로 반등하였으나, 3월에는 추가 상승 없이 포함세로 전환됨
- '25년 상반기 고점인 6월, 9월의 395천 원/톤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당분간 380~385천 원/톤 내외의 횡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됨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6.3.23.), [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6.04.23. 검색\)](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6.04.23.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2)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6.3.23.), [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6.04.23. 검색\)](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6.04.23. 검색))

2 일본철원협회, '50년 세계 철스크랩 발생량 8억 7,300만 톤 전망⁴³⁾

-  일본철원협회는 '50년 세계 철스크랩 발생량이 8억 7,3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는 '20년 발생량(6억 4,100만 톤) 대비 36.2%(+2억 3,200만 톤) 증가한 수치임
 - 다만 이는 5년 전인 '21년 예측치(9억 400만 톤)보다 3,100만 톤 줄어든 것으로, 중국 및 주요 선진국의 증가세 둔화가 반영된 결과임
 - 협회는 인도·동남아 등 신흥시장의 경제개발에 따라 철스크랩 발생량 증가세가 빨라지는 반면, 세계 최대 철강 축적량 보유국인 중국과 여러 선진국에서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철스크랩 발생량은 크게 노폐 스크랩과 가공 스크랩으로 구분되며, 노폐 스크랩은 경제성장과 함께 장기간 축적된 철 구조물이 수명을 다해 철거·해체·폐기되는 과정에서 누적 철강 축적량의 연간 약 1.5% 내외로 회수되는 스크랩을 의미함
 - 또한, 가공 스크랩은 제조업 철강 가공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스크랩(생철·선반설 등)을 의미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3) 스크랩워치(2026.04.06.), <https://www.scrapwa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24>(2026.04.23. 검색)

10) 철재



1 '26년 3월 국내 철강 반제품 물가지수, 슬래브·빌렛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재전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6년 3월 국내 주요 철강 반제품(선철·슬래브·빌렛) 생산자 물가지수 중 전년 동월 대비로는 슬래브·빌렛은 마이너스로 재전환되며 '26년 2월의 플러스 전환 흐름이 이어지지 못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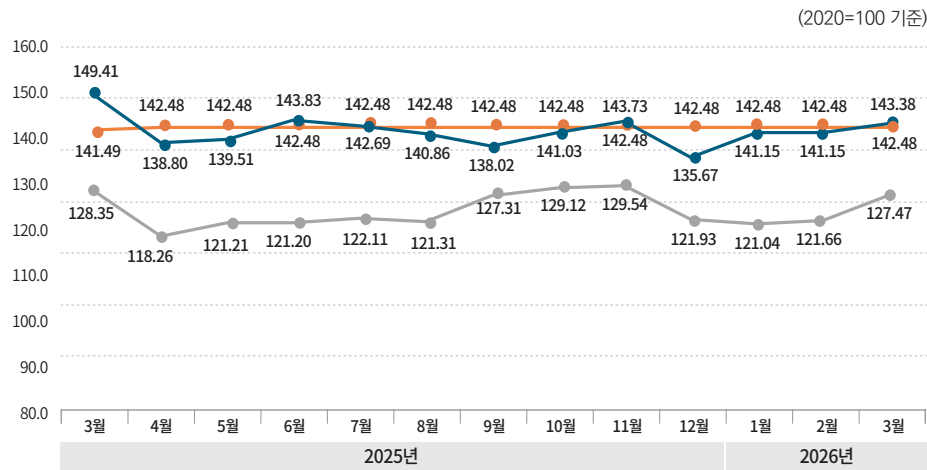
 - 선철은 '26년 3월에도 142.48을 유지하며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고, 전년 동월(141.49) 대비 0.7% 상승하여 장기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음
 - 슬래브는 '26년 3월 143.38로 전월(141.15) 대비 1.6% 상승하며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전년 동월('25년 3월 149.41) 대비로는 4.0% 하락해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재전환됨
 - 빌렛은 '26년 3월 127.47로 전월(121.66) 대비 4.8% 상승하며 세 품목 중 전월 대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하였으나, 전년 동월('25년 3월 128.35) 대비로는 0.7% 하락해 마이너스로 돌아섬
- 전월 대비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슬래브·빌렛의 전년 동월 대비 지수가 '26년 2월의 플러스 전환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된 점은 반제품 시장의 회복 지속성이 제한적임을 시사함

 - 특히 슬래브의 전년 동월 대비 낙폭(-4.0%)은 세 품목 중 가장 크며, '25년 3월(149.41) 고점 대비 현재 수준이 여전히 낮아 가격 회복의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03 품목 및 산업 동향

선철, 슬래브 및 빌렛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선철
- 슬래브
- 빌렛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선철	141.49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0.0	0.7
슬래브	149.41	138.80	139.51	143.83	142.69	140.86	138.02	141.03	143.73	135.67	141.15	141.15	143.38	1.6	-4.0
빌렛	128.35	118.26	121.21	121.20	122.11	121.31	127.31	129.12	129.54	121.93	121.04	121.66	127.47	4.8	-0.7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4.23.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 세계철강협회, '26년 글로벌 철강 수요 0.3% 성장 전망, '27년 회복 가속화⁴⁴⁾

-  세계철강협회(worldsteel)는 4월 단기 수요 전망(SRO, Short Range Outlook)을 발표하며 '26년 글로벌 철강 수요가 전년 대비 0.3% 증가한 17억 2,4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아울러, '27년에는 2.2% 성장한 17억 6,200만 톤으로 회복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함
 - '22년 이후 지속된 구조적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25~'26년을 저점으로 완만한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25년 10월 전망치와 부합하는 결과임
 - 중국의 철강 수요 감소 폭은 '26년 -1.5%로 완화되며 주택시장 안정화가 기대되고,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은 강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반면, 중동 분쟁은 역내 철강 수요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철강 수요는 기술 주도 민간 투자 확대와 공공 인프라 지출에 힘입어 '26년 1.7%, '27년 2.0% 성장이 예상되나, 높은 자재 비용·모기지 금리·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제약이 회복 속도를 제한할 것으로 평가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4) worldsteel(2026.04.14.), <https://worldsteel.org/media/press-releases/2026/worldsteel-short-range-outlook-april-2026/>(2026.04.23. 검색)

11) 자동차



① '26년 2월 자동차산업, 전년 동월 대비 내수·수출·생산 감소⁴⁵⁾

- 2월 내수는 전월 대비 2.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7.2% 감소한 123,275대를 기록함
 - '26년 설 연휴가 2월로 이동하면서 영업일수가 감소하였으나, 전기차 판매 확대가 감소폭을 완화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7.2% 감소함
 -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7% 증가한 77,023대가 판매되었으며, 전체 내수 판매의 62.5%를 차지함
 - HEV와 PHEV는 감소하였으나, 친환경차 보조금 조기 확정으로 연초 정책 공백이 해소되면서 전기차 판매가 크게 확대됨
- 2월 수출은 전월 대비 24.4%, 전년 동월 대비 19.1% 감소한 188,450대를 기록함
 - 미국향 HEV 차종 수출이 증가에도 설 연휴로 인한 조업·선적 일수 감소로 수출이 감소함
 - 친환경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9% 감소하여 전체 자동차 수출의 35.2%인 66,287대를 기록함
- 2월 생산은 전월 대비 22.8%, 전년 동월 대비 21.0% 감소한 278,250대를 기록함
 - 설 연휴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전 제조사에서 생산이 줄어들었음

단위 : 대, 백만 \$, %

'26년 2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5년			2026년			증감률		
	연간	2월	2월 누적	1월	2월	2월 누적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2월 누적 대비
내수	1,680,110	132,854	238,782	120,816	123,275	244,091	2.0	-7.2	2.2
(국산차)	1,355,296	111,089	200,535	98,058	94,861	192,919	-3.3	-14.6	-3.8
(수입차)	324,814	21,765	38,247	22,758	28,414	51,172	24.9	30.5	33.8
OEM 수입	17,925	1,620	3,021	1,840	1,242	3,082	-32.5	-23.3	2.0
수출	2,736,109	232,977	432,831	249,329	188,450	437,779	-24.4	-19.1	1.1
(완성차 수출액)	71,976	6,065	11,052	6,067	4,806	10,872	-20.8	-20.8	-1.6
(부품 수출액)	21,200	1,868	3,438	1,631	1,449	3,080	-11.2	-22.4	-10.4
생산	4,102,200	352,061	642,649	360,504	278,250	638,754	-22.8	-21.0	-0.6

주: 수입차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승용자동차등록통계+국내제조사의 해외공장산 수입판매(OEM수입)+Tesla 합산, 수출액은 관세청 수출입통계(MTI 741, MTI 742)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6.04.17.),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80&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6.04.24.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5)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6.04.17.),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80&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6.04.24. 검색)

2 유가 급등에 전기차 수요 확대, 친환경차 수출 구조 변화 본격화⁴⁶⁾

-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기차 침투율 상향과 친환경차 수출 비중 확대 등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SNE리서치는 올해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기존 27%에서 29%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함
 - 지난해 친환경차 수출은 2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해 전체 자동차 수출의 35%를 차지했으며, 올해 1~2월에는 비중이 41%까지 상승함
 - 3월에는 하이브리드(+38.1%)와 전기차(+32.1%) 수출이 증가하며 내연기관차 감소를 보완하는 양상이 나타남
-  유가 상승이 전기차의 경제성을 부각시키면서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차 수요 확대와 수출 증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대까지 상승할 경우, 전기차 구매 회수기간이 약 1년 2개월로 단축돼 수요 전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7년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은 35%, '35년에는 최대 85%까지 확대 가능성이 제시됐으며, 생산 측면에서도 전기차 전용공장 가동과 모델 다양화가 병행되며 수출 확대 기반이 강화되고 있음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6) 뉴시스(2026.04.11.),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09_0003583968(2026.04.24. 검색)

3 BYD, 국내 누적 판매 1만 대 돌파하면서 수입 전기차 시장 내 입지 확대⁴⁷⁾

-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국내 진출 11개월 만에 누적 판매 1만 대를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BYD는 '25년 4월 첫 고객 인도 이후 약 11개월 만에 1만 75대를 기록해 수입차 업계 기준 최단기간 성과로 평가됨
 - 아토3, 쉘, 씨라이언7, 돌핀 등 4개 모델과 8개 트림으로 라인업을 확대해 '25년 말 기준 6,107대를 판매함
 - 개인 구매 비중은 79%로 수입차 평균을 상회했으며, 40~50대가 핵심 소비층으로 나타남
-  주력 모델 판매 확대와 신차 출시를 통해 국내 전기차 시장 내 영향력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 씨라이언7은 출시 이후 매달 500대 이상 판매되며 판매를 견인했고 아토3도 월평균 300대 이상을 유지했으며, 돌핀은 출시 두 달 만에 계약 2,000대를 돌파하며 3월 한 달간 652대가 판매됨
 - 하반기에는 PHEV 기술을 적용한 'DM-i' 모델 출시와 함께 전시장 35곳, 서비스센터 26곳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7) 중앙일보(2026.03.1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0900\(2026.03.21. 검색\)](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0900(2026.03.21.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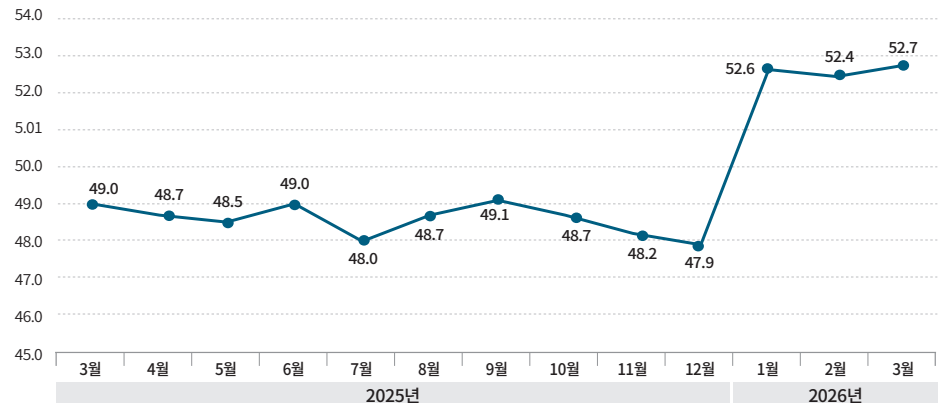
12) 잡화



1 미국 제조업 PMI 52.7 기록, 확장 국면 3개월 연속 유지⁴⁸⁾

- 📊 '26년 3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7로 전월(52.4) 대비 0.3p 상승하며 기준선(50)을 상회하는 확장 국면을 3개월 연속 유지함
 - '25년 12월 급반등 이후 52p대 수준에서 안정적인 확장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임
 - 전년 동월 대비 3.7p 상승하며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개선 흐름이 확인됨
- 📊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며 확장세가 재차 강화되는 흐름을 보임
 - 전월(52.4) 대비 0.6% 상승하며 2개월 연속 50p대 중반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함
 - '25년 하반기 위축 구간(50 이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확장 기조가 공고화되는 모습임
 - '26년 1월 이후 3개월 연속 52p대를 유지하며 단기 조정 없이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
- 📊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
 - PMI가 50 이상을 유지하며 생산 및 수요 회복 기대가 지속되고 있음
 -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중동 분쟁 등 대외 리스크가 제조업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상존함
 - 향후 신규주문 및 생산지표의 지속적 개선 여부가 확장세 유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PMI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48) Trading Economics(2026.04.0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2026.04.27.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PMI	49.0	48.7	48.5	49.0	48.0	48.7	49.1	48.7	48.2	47.9	52.6	52.4	52.7	0.6	7.6

자료: Trading Economics(2026.04.0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2026.04.27.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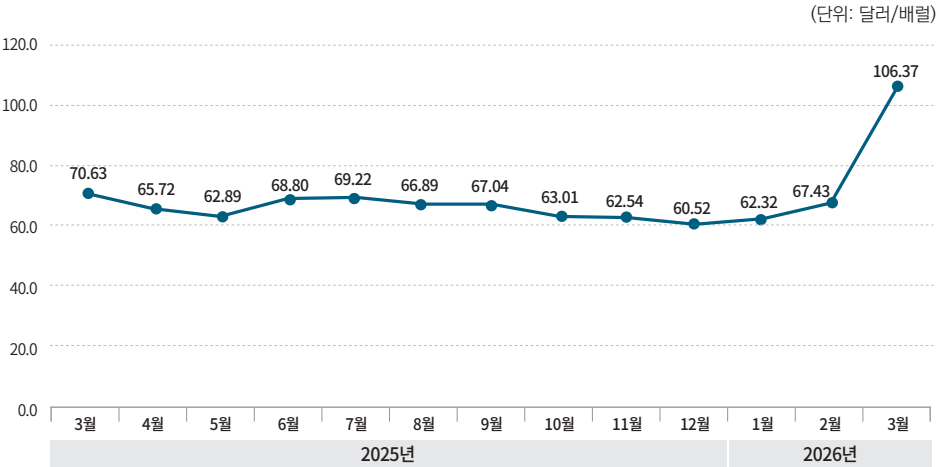
13) 유류



1 '26년 3월 국제유가, 전월 대비 57.8% 상승

- 3월 세계 3대 유종의 배럴당 평균 유가는 전월 대비 57.8%, 전년 동월 대비 50.6% 상승한 106.37달러를 기록함
- '25년 12월 최저 수준을 기록한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월 28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서 3대 유종 모두 전월 대비 크게 증가함
- 특히 두바이유 가격은 전월 대비 87.9% 증가한 128.52달러를 기록하는 등 큰 증가세를 보임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72.49	67.74	63.73	69.26	70.87	69.39	70.01	65.00	64.47	62.05	61.97	68.40	128.52	87.9	77.3
Brent	71.47	66.46	64.01	69.80	69.55	67.26	67.58	63.95	63.66	61.63	64.73	69.37	99.60	43.6	39.4
WTI	67.94	62.96	60.94	67.33	67.24	64.02	63.53	60.07	59.48	57.87	60.26	64.52	91.00	41.0	33.9
평균	70.63	65.72	62.89	68.80	69.22	66.89	67.04	63.01	62.54	60.52	62.32	67.43	106.37	57.8	50.6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석유가격, [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6.04.24. 검색\)](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6.04.24.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호르무즈 사태 장기화, 석유제품 수출 제한 여부 딜레마로 부상⁴⁹⁾

-  원유 공급 차질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의 휘발유·항공유 등 석유제품 수출 제한 여부가 미국·호주와 얽힌 에너지 공급망 구조 속에서 정책적 딜레마로 부상하고 있음
 - 지난해 국내 정유 4사의 최대 석유제품 수출국은 호주(16.8%)였으며, 항공유는 미국이 44.9%로 최대 고객이었음
 - 한국은 반대로 미국산 원유(17.0%)와 호주산 LNG(32.8%)를 대거 수입하고 있어 상호 의존 구조가 형성돼 있음
 - 전문가들은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할 경우 미국·호주가 원유·LNG 공급을 축소하는 ‘자원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함
-  비축유 활용과 추가 수출 제한 조치까지 검토되며 정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지는 상황임
 - 원유 공급 차질이 심화돼 비축유 방출에 나설 경우, 석유 수출을 유지할지 여부를 둘러싼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부는 현재 비축유를 직접 방출하는 대신 민간과 교환하는 ‘스왑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단기 방출 계획은 없다고 밝힘
 - 나프타 수출 금지에 이어 합성수지까지 확대할 경우, 해외 진출 기업 피해 등 추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석유제품 수출,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 국가별 비중

한국 석유제품 수출 국가별 비중

단위: %, 석유제품은 휘발유 경유 등, 2025년 기준.



자료: 대한석유협회

한국 원유 수입 국가별 비중

단위: %, 배럴 기준, 2025년 기준.



자료: 한국석유공사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쿠웨이트

한국 항공유 수출 국가별 비중

단위: %, 2025년 기준.



자료: 대한석유협회

뉴질랜드

한국 천연가스 수입 국가별 비중

단위: %, 가격 기준, 2025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5.1

자료: 동아일보(2026.04.14.),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0414/133731952/2>(2026.04.24.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9) 동아일보(2026.04.14.),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0414/133731952/2>(2026.04.24. 검색)

3 정부, 비축유 1억 6,000만 배럴로 확대⁵¹⁾

-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따른 원유 공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비축유 저장능력을 기존 1억 4,000만 배럴에서 1억 6,000만 배럴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함
 - 이번 추경을 통해 약 2,000만 배럴을 추가 비축할 계획이며, 추가 필요 물량도 설계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임
 - 4~5월 기준 대체 원유 확보 물량은 약 1억 1,800만 배럴로, 평시 대비 82% 수준까지 회복된 상태임
 - 정유사 스와프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 대응을 병행하고 있음
-  중동 산유국들이 동북아 역외 비축 수요 확대 차원에서 한국 비축기지 활용을 협의하는 등 에너지 허브 기능이 부각되고 있음
 - UAE를 포함한 산유국들이 호르무즈 봉쇄 시 수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국 비축기지 활용을 요청하고 있음
 - 비축유는 공식 방출 없이 스와프 방식으로 운용 중이며, IEA 공동 방출 일정 등을 고려해 대응 시점을 검토 중임
 - 정부는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과 NCC 가동률 70% 회복 목표 등 산업 영향 최소화 조치를 병행하고 있음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0) 더팩트(2026.04.14.), <https://news.tf.co.kr/read/economy/2312933.htm>(2026.04.24. 검색)

14) 화학공업
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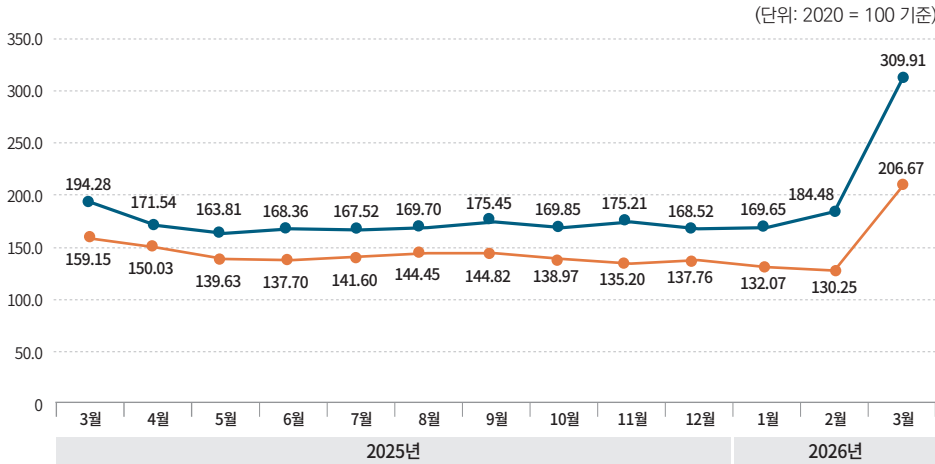


나프타 및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나프타
● 에틸렌

① '26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나프타 및 에틸렌 크게 증가

- 3월 나프타와 에틸렌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68.0%, 60.5% 증가한 309.91p, 206.67p를 기록함
-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석유제품 중 하나인 나프타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전월 대비 높은 상승세를 기록함
- 나프타 크래킹 등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원료인 에틸렌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원유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나프타와 함께 크게 증가함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194.28	171.54	163.81	168.36	167.52	169.70	175.45	169.85	175.21	168.52	169.65	184.48	309.91	68.0	59.5	
에틸렌	159.15	150.03	139.63	137.70	141.60	144.45	144.82	138.97	135.20	137.76	132.07	128.74	206.67	60.5	29.9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4.24. 검색\)](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4.24.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여천NCC, 중동사태 이후 첫 가동률 상향⁵¹⁾

-  중동사태로 나프타 수급난이 심화되며 가동률을 최저 수준으로 낮췄던 여천NCC가 지난 10일부터 여수 1·2공장 가동률을 55%에서 60%로 상향 조정함
 - 중동 불안으로 원료 도입이 급감한 이후 처음 이뤄진 가동률 인상 조치임
 - 여천NCC의 턴다운 비율은 50%로 그간 최소 가동 수준에 근접해 운영해왔으나, 포장용기, 비닐봉지, 의료용품 등 생활·보건 필수품 수급 차질 우려가 상향 배경으로 작용함
-  정부의 대체 원료 확보 및 정책 지원과 맞물려 공급망 유지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완전 정상화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 정부는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6,744억 원 규모 예산으로 수입단가 상승분을 지원하는 등 대응에 나섬
 - 대체 나프타 도입과 추경 지원으로 제한적 회복 기대가 제기되고 있으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이란 갈등 지속으로 나프타 수급 불안 장기화 가능성이 남아 있음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1) 이데일리(2026.04.1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72166645416120&mediaCodeNo=257&OutLnkChk=Y\(2026.04.24. 검색\)](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72166645416120&mediaCodeNo=257&OutLnkChk=Y(2026.04.24. 검색))

3 정부, 나프타 6,744억 원 지원 및 비중동 원유 운임 100% 보전⁵²⁾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4~6월 체결 나프타 도입계약 물량에 대해 전쟁 이전 가격과 실제 수입가격 간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6,744억 원 규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나프타 도입의 73%, 원유 도입의 69%를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를 감안한 공급망 대응 조치임
 - LPG·콘덴세이트 등 대체원료와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함
 - 원료 부족으로 하락한 설비 가동률을 회복하고 보건·의료·생필품 등 핵심 품목 원료를 우선 공급할 계획임
-  비중동 지역 원유 도입 확대를 위해 운임 차액을 전액 보전하는 등 공급선 다변화 지원을 강화함
 - 미주·아프리카·유럽 등 비중동 지역 도입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의 100%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 기존 약 25% 수준이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비율을 전액으로 확대했으며, 환급 확대 규모는 약 1,275억 원으로 추산됨
 - 정부는 대체 물류망 확보와 업계 협력을 통해 산업활동 연속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힘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2) 이투데이(2026.04.15.), <https://www.etoday.co.kr/news/view/2575906>(2026.04.24. 검색)

연구책임자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연구진

신정훈 항만수요분석실 부연구위원

박세리 항만수요분석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분석실 전문연구원

최상균 항만수요분석실 전문연구원

감리

김찬호 항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6년 4월 30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